

와인, 설 명절선물로 잘 나간다

광주신세계 29%, 롯데백화점 주류 매출 30% 신장 과일 등 농산물 매출 줄고 건강식품은 신장세

전통적인 명절선물이었던 과일 등 농산물보다 와인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를 중간집계한 결과 올해 설 명절선물로 와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건강상품도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를 중간 집계 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5.6% 매출이 신장했다.

선물 구입 고객의 비율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와인 비중이 무려 29.2%나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신세계가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와인들이 인기를 끌며 전체적인 와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게 광주신

세계 측의 설명이다.

선물세트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과 달리 전통적인 명절선물인 과일 등 농산물의 경우 같은 기간 오히려 매출이 -16.1%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수산물 매출이 10.4% 증가했고, 축산은 20.4% 늘었다. 여기에 올해 또 다른 선물상품으로 건강상품의 인기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강 부문은 홍삼의 판매가 두드러지며 무려 55.3%나 신장했다. '정관장' (49.7% ↑)을 비롯한 '강개상인' (94.9% ↑) 등 관련 브랜드들이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실속형 선물세트 판매도 증가했다. 10만원 미만 선물세트는 전년 대비 6% 신장했고, 매출구성비는 35.6%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명민 광주신세계 현지 바이어는 "올 설 선물 트렌드는 10만원 이하의 가성비 상품과 한우, 굴비 등 기존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았던 상품 이외에도 건강, 와인 등 다양한 상품들이다"며 "광주신세계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 선물을 통해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기존 선물 상품과 달리 와인 등 차별화된 이색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다.

특히 명절에만 구입 할 수 있는 한정판 선물세트는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아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카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특정 카테고리 강화한 선물세트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우선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지난 11일부터 28일까지 매출을 지난해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기간과 비교한 결과 주류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율 30%로 크게 올랐다.

기해년을 맞아 황금 돼지 로고를 새겨 넣은 특별 와인 에디션 'KY 이태리 럭셔리

1호'와 'LT 울프플러스 2호'를 선보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100만원대를 상회하는 프리미엄 와인인 '샤또 슈발블랑'과 '샤또 무동 로스웰드' 역시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전반적인 와인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또 '단 하나의 특별함'을 선물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세트도 이색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도 많다.

롯데백화점에서 선보인 프레스티지L 세트는 울릉취소 명품세트, 프레스티지L 사과-배 혼합세트, 영광 범성포 황제 굴비세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품군별 최상의 제품만 선별하여 주문제작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민숙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플로어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소비심리를 반영한 특색있는 상품들을 앞으로도 더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와인매장에서 직원이 기해년을 맞아 황금 돼지 로고를 새겨 넣은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올해 설 명절선물로 와인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명절음식도 간편식으로 즐긴다

제수음식 매출 이마트 64% ↑ 동태전·고기완자전 등 인기

명절음식도 간편가정식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 광주지역민들 사이에서 제수음식 간편식으로 동태전과 고기완자전 등 전 종류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

30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월 현재까지 간편가정식 제수음식 매출은 64% 신장했으며, 판매구성비 비율은 같은 기간 3%에서 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간편식 형태의 제수음식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 달라진 명절 트렌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소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전통적인 차례상 대신 전, 떡

갈비, 너비아니 등 간소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편 제수음식을 출시하는 제조 브랜드의 다양화와 이마트 피코크 제수음식 종류가 50여종까지 확대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마트 측의 설명이다.

또 광주에서는 명절 제수음식 간편가정식으로 '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가정식 중에서 전의 경우 지난 2017년 설 명절부터 200% 넘게 신장하며 최근까지 고신장을 보이고 있다. 간편가정식 전체매출 중 구성비가 16%에 달하는

등 인기가 좋다.

이마트는 간편 제수 음식 상품 인기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전, 떡갈비, 떡국떡 등 제사상에 주로 오르는 피코크 제수음식 50종에 대한 행사상품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장원중 이마트 상무점장은 "명절을 간소하게 지내면서 명절 차례음식도 간편식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맛과 뛰어난 품질의 다양한 간편 가정식 제수음식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해 온라인몰 매출 16% '경풍'

새벽배송·간편결제 영향

온라인 쇼핑몰이 새벽 배송과 간편결제 등 편의 기능을 도입한 덕분에 지난해 매출을 16% 가까이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프라인 부문이 1.9%, 온라인이 15.9% 증가했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오프라인이 차지한 비중은 62.1%, 온라인 37.9%로 온라인 비중이 2.9%포인트 높아졌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매출이 성장했지만, 온라인보다 성장

세가 저조했다.

편의점은 점포 수가 2017년 12월 3만 4163개에서 2018년 12월 3만5676개로 늘었고, 특화 상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매출이 8.5% 증가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1인 가구 확산에 맞춰 간편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주력 품목인 식품군 매출이 늘어 전체 매출이 2.0% 성장했다.

백화점은 잡화와 의류 매출이 감소했지만 단가가 높은 대형가전, 가구 매출이 성장하며 전체 매출이 1.3%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온라인 매장과 전문점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식품군과 가전을 제외한 모든 상품군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전체 매

출이 2.3% 줄었다.

온라인은 쇼핑 편의성 개선 등의 효과로 온라인판매(19.2%)와 온라인판매중개(14.7%)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판매는 새벽 배송 등의 도입으로 신선식품 배송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식품 부문을 중심으로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판매중개는 모바일 쇼핑 확산에 맞춰 상품추천과 간편결제 등 고객 편의를 위한 기능을 도입한 게 도움이 됐다.

상품군별 매출은 가전·문화, 식품, 서비스 비중이 소폭 늘고, 패션·잡화, 아동·스포츠 비중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매출은 오프라인 부문이 0.1% 감소하고, 온라인은 14.3% 성장하면서 전체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연합뉴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딸기 케이크·타르트 선보여

다음달 28일까지 1층 디오니소스 카페&바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오는 2월 28일까지 1층 디오니소스 카페&바에서 제철 딸기로 만든 케이크와 타르트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스트로베리 케이크'는 제철 딸기의 상큼함과 신선한 생크림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케이크로, 사이사이에 블루베리 리플 잼이 채워져 있다.

'스트로베리 타르트'는 가볍고 바삭한 타르트 속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아몬드 크림과 크림치즈가 들어있어 서로 상반된 식감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호텔 측의 설명이다.

피스(Piece)와 홀(Whole)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각각 7만7000원, 5만원이다. 홀케이크의 경우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자세한 문의나 예약은 전화(062-610-7063) 또는 홈페이지(higwangju.com)에서 가능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